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⑭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3) 수좌(首坐)·서기(書記)

선원총림 6두수의 핵심 직책

주지를 보좌해 선원총림을 운영, 지탱하는 두 축은 여섯 명의 지사(六知事, 東序)와 6두수(六頭首, 西序)이다. 지사(知事)를 일명 동서(東序)·동반(東班)이라고 하고 두수(頭首)를 서서(西序)·서반(西班)이라고 한다.

수좌는 서서(西序) 즉 두수 서열 가운데 제일 위(第一位)로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그래서 제일좌(第一座) 또는 좌원(座元)이라고 하는데, 승당 내에서 '첫 번째 자리' 또는 '오편'이라는 뜻이다. 또 선당에서는 가장 상위에 앉으므로 선두(禪頭), 대중 가운데 가장 상수(上首)이므로 수중(首衆)이라고도 한다.

감원(監院, =都寺)이 동서(東序) 곧 지사의 우두머리로서 서부(庶務)와 재정 등 살림을 총괄하고 있다면, 수좌는 두수의 우두머리로서 참선지도 등 교육을 총괄한다. 그러므로 선원총림에서 이 두 소임은 가장 중요한 직책이지만, 누가 더 상위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1년에 한 번씩 새로 소임을 임명할 때, 때로는 수좌에서 감원으로, 감원에서 수좌로 수평 이동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동급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총림은 수행이 우선이므로 표면적으로는 수좌가 좀 더 중시되었다.

대중이 많을 때는 전당수좌(前堂首座)와 후당수좌(後堂首座) 두 명을 둔다. 승당(禪堂)을 반으로 나누어 앞을 전당, 뒤를 후당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전당수좌는 전당에 있는 대중들만, 후당수좌는 후당에 있는 대중들만 지도·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승당의 총 책임자는 전당수좌이고 후당수좌는 부(副)로서 전당수좌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다만 승당을 출입할 때 전당수좌는 앞뒤 문을 구별하지 않고 출입하고 후당수좌는 후문으로만 출입한다.

승당 내 참선 지도 총괄한 수좌

당송시대 특히 당말 송대에는 총림에 많은 선승들이 생활했다. 보통 300명 이상이 기거했는데, 실제로 대혜선사(1089-1163)가 주지로 있을 당시 경산사에는 무려 1700명이나 있었다. 경산사 천승각이나 해회당(海會堂)의 경우 890명 이상으로 조계사 대웅전(155.7평)의 6배에 달한다. 수좌 한 명으로서의 통제가 불가능한 규모다.

수좌는 선원의 수석 선승으로 주지를 보좌해 참선 지도 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지(방장)가 공무로 여러 날 외출 중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궐위(闕位) 시에는 주지를 대신해 선원을 총괄하며 상당 범위·소할 범문 등 모든 범문도 대신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좌의 위치는 조실이나 방장 다음이다.

〈취수백장정규〉 전당수좌 장에는 “전당수좌는 총림의 모범이며, 인친의 안목이 되는 사람이다. 주지(방장)를 대신해 대중에게 설법(分坐說法)하며 후배를 지도한다. 좌선할 때는 대중을 이끌고 규칙을 지키게 한다(…대중들이 예의범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규율에 의해 벌을 내린다(前堂首座, 表率叢林, 人天眼目, 分坐說法, 開鑿後昆, 坐禪領衆, 謹守條章…僧行失儀, 依規示罰)”라고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분좌설법(分坐說法)’이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에 상수제자인 가섭존자가 오자 자리의 반을 나누어 앉게 했다는 고사(故事)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흔히 ‘다자탑전 분반좌(多子塔前 分

半座)’라고 한다. 자리의 반을 나누어 앉게 한다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미덕이고 제자로서는 황송한 일이지만, 법이 스승에 버금감을 의미한다. 그 자체가 공식적인 인정에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승(부처님 또는 주지·조실·방장)을 대신해 설법해도 좋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수좌가 주지(방장)를 대신해 설법할 때는 정식 설법장소인 법당에서 하지 않고 조당(照堂)에서 한다. 법당에서 법을 설하는 것은 주지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선은 승당에서 대중과 함께 하지만 생활은 수좌좌(首座寮)라는 당우에서 별도로 한다.

수좌와 관련된 선화(禪話)는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산 선사와 관련된 선화를 통해 선종의 일단을 감상해 보고자 한다. 이 선화는 ‘적도정병(惻淨瓶) 공안’으로서 위산화상이 발로 정병(물병)을 차 버린 이야기이다. 〈연등회요〉 위산영우장과 〈무문관〉 40쪽에 나온다.

위산 화상이 백장 선사(百丈, 720-814) 문하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그는 6지사의 하나인 전좌직(典座職, 주방장)을 맡고 있었다. 이 무렵 백장 화상은 대위산(大山)에 선원총림을 신설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장차 대위산의 주인 즉 주지가 될 사람을 정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 대임을 맡을 적임자는 수좌인 화림(華林)과 전좌인 영우(위산)였다. 백장 화상은 선원의 제일좌로 있는 화림 수좌와 협의하여 법담(法談)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중들이 오진한 가운데 백장 화상은 문제를 출제했다. 정병(淨瓶,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을 정병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수좌가 앞으로 나와서 대답했다. “(정병이라고 부르서는 안 된다고 하다면) 나무 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백장 화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화림 수좌의 답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아직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정도의 별력을 가지고는 대위산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이어 위산에게 물었다. 위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발로 정병을 차버리고는(淨淨瓶) 밖으로 나갔다. 물론 정병이라고 해도 정답이 될 수 없었지만, 정병이 아닌 그 무엇이냐고 해도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었다. 격외의 선지(禪旨)를 유감 없이 보여준 위산의 경지는 대위산의 주인이 되고도 남았다. 백장화상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승당의 제일수좌는 위산에게 쟤네.”

백장선사는 위산 영우를 대위산으로 보내어 법을 펼치도록 명했다. 이리하여 중국 선종의 다섯 개 문파(五家) 가운데 첫 주자인 위양종이 탄생하게 된다. 그를 위산(山)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로부터이다.

대위산은 호남성 담주 장사부(長沙府)에 있는 산으로 향후 선종사 지도에 한 위치를 차지한다. 〈치문경훈〉 속에 있는 위산경책이 바로 위산이 남긴 잠언인데, 위양종은 위산(771-853)과 제자 양산(807-883)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것으로, 선의 세계를 원상(圓相, ○)으로 표현했다. 원상은 원만 즉 완전 무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원의 수좌직을 맡고 있는 이들



해인총림에서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참선 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월간 해인

수좌, 선원의 수석 선승으로 주지 보좌

문서·문한 담당 서기는 총림 품격의 잣대

수좌라고도 부르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스님이나 선원에서 참선하는 스님을 범명을 붙여 ‘○○수좌’라고도 많이 부른다. 수좌를 지낸 스님에 대해 존칭으로 부르던 미덕이 점점 하향해 일반 스님에게도 ‘○○수좌’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서기, 공문·보고서·축원문 등 담당

서기는 서장(書狀)이라고도 하는데, 6두수(六頭首) 가운데 두 번째이다. 그래서 제일좌(第一座)인 수좌에 이어 제이좌(第二座)라고 한다. 서기는 공사(公私)의 문서 및 문한(文翰)을 담당하는 소임이다. 서기의 소임은 단순하지 않다. 서기는 관청에 보내는 소문(疏文)과 공문(公文)·보고서(報告書) 등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한다. 이 밖에도 선원의 각종 법회와 행사 때의 취지문·축원문·방함록·결제방 등 모든 방문(榜文) 등을 담당한다.

〈선원정규〉에는 서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서소(書疏, 편지와 소문)를 작성할 때는 글씨는 정갈하게 써야 하고 언어는 정제(整齊)해 지위의 존비(尊卑)에 맞는 말을 써야 한다. 관원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할 것이며 함부로 써서 보내서는 안 된다. 매년 시주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시주의 명함(직함 등 官位)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기문(記文)·소문(疏文) 등을 지을 때는 고급의 글을 참고해 찬(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청이나 관원에게 소문(疏文)이나 서간문 등을 보낼 때는 언어 선택에 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언어 표현이 적절치 못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서기는 문서를 담당하는 소임이지만, 한편으로

문한을 통해 대외적인 일을 담당하는 소임이기도 했는데, 하나의 문한(文翰)에서 해당 총림이 얼마나 규모와 품격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조선시대에 중국에 보내는 표문(表文)이나 소문(疏文) 등을 작성할 때는 성군관과 흥문관 등에서 문한(文翰)에 능한 학자가 총동원돼 작성했다. 문장력이 부족하면 진실을 100%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국에 대한 예의가 없고 불성실하다는 오해를 사서 환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또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접민사로 고급의 지식과 문한(文翰) 그리고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정해 맞이하게 했다. 때로는 사신이 접민사의 해박한 지식과 시작(詩作) 등 문장에 감동해 아무 말 없이 일이 잘 풀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서기에 대해 〈선원정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고 있다.

“선원(禪月)과 제기(齊己)는 단지 시승(詩僧)일 뿐이며, 가도(賈島)와 혜휴(惠休)는 세속의 식자(識者)로 흘러갔다. 어찌 출가자의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원과 제기, 가도(賈島)와 혜휴는 모두 스님으로서 당대(唐代) 내나라하는 시승(詩僧)이었다. 이 말은 문한을 맡은 서기의 임장에서 문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문장 치레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용이 진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그 유명한 가도(賈島, 승명은 無本)와 한유(韓愈)의 ‘퇴고(推轂)의 고사’를 빼놓을 수 없다. 퇴고(推轂)란 문장을 다듬는 것을 말한다.

가도와 한유는 모두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었다. 가도가 어느 날 나귀를 타고 장안을 지나가다가 시(詩) 한 수를 지었는데, 그 중 3행과 4행(=結句)이

“조속지변수(鳥宿池邊樹) / 승고월하문(僧敲月下門)이었다. 번역하면 “새는 연못가의 나무 위에 잠 들고 /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인데, 가도는 이렇게 지어 놓고 4행 결구(結句)에서 ‘두드리다(敲·두드림)고’로 해야 할지, ‘밀다(推·밀되)로 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오는 ‘경조윤(京兆尹)의 행차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경조(京兆)는 당시 당(唐)의 수도였던 장안(長安)을 가리키고, 경조윤은 수도의 장관으로서 오늘날 서울시장(한성 관운)과 같은 높은 벼슬이었다. 고관들이 지나갈 때 평민은 거마(車馬), 혹은 가마가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어야 했다. 가도로서는 ‘퇴고(推轂)’를 갖고 고심하다가 분의 아내 경조윤의 행차를 가로막게 되었으니 난감한 입장이었다. 이때 경조윤은 한유(韓愈, 韓退之)였다. 한유는 그 유명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데, 사연을 들어본즉 웃음이 나왔다. 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거기에는 ‘두드릴 고(敲)’가 더 좋겠네”라고 말했다.

이후부터 시(詩)나 글을 다듬는 것을 ‘퇴고(推轂)’라고 하게 되었고, 둘은 막역한 시우(詩友)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준은 일찍이 〈문장강화〉에서 이 고사를 예로 들어 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종을 통하여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저지
전주부리면귀이만!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겠습니다!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울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대표: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대한민국 명장)

● 전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합곡리 406-28 Tel:043-536-2581